

## 사회



**장마 뒤 잡초 제거** 2일 광주시 서구 서창동에서 한 농민이 장마동 안 흙썩 자라버린 잡초를 제거하고 있다. 광주 지방기상청은 “3일 광주·전남은 장미전선의 영향을 받아 여수와 순천, 원도, 고흥 등 남해안 지역에 5~20mm의 비가 내릴 것”이라고 예보했다.

/나영주기자 mjna@kwangju.co.kr

## 아내와 불륜 의심 선배 흉기 살해

**목포경찰, 40대 영장**

목포경찰은 1일 아내와의 불륜을 의해 살인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씨는 지난달 31일 밤 10시께 목포시 용당동 아내 A(46)씨의 식당에서 술에 취해 말다툼을 하던 중 이를 말리기 위해 찾아온 이모(54)씨를 흉기로 찔러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목포=대성수기자 dss@kwangju.co.kr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조사 결과 이씨는 이날 아내와 이혼 문제로 말다툼을 벌이다 아내가 숨진 이씨에게 도움을 요청하자 두 사람의 관계를 의심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아내가 숨진 이씨에게 전화로 도움을 청하는 과정에서 ‘오빠’라고 부른 데 격분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고 있다.

완도 저수지서 60대 의사

1일 오전 9시30분께 완도군 약산면 한 저수지에서 김모(63)씨가 물에 빠져 허우적거리고 있는 것을 낚시객들이 발견해 119에 신고,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숨졌다. 김씨는 스티로폼을 엮어 만든 배로 약 2시간 동안 혼자 새우를 잡다가 물에 빠진 것으로 알려졌다. /완도=정은조기자 ejchung@

## 한 대 2~13억…불황에 환자 선점 공격 투자

### 과열 경쟁에 또 다른 경영 압박 요인 우려도

광주지역 병원들이 때 아닌 고가 의료장비 유치 경쟁을 벌이고 있다. 불황 속에 이뤄지고 있는 이 같은 경쟁적인 투자는 최신 의료기기를 보유하는 흥보 효과에 따른 환자 선점은 물론 향후 경기회복시 매출 극대화를 꾀할 수 있다는 판단에서 비롯된 것으로 분석된다.

하지만 경기 회복에 따른 재투자가 아니라 환자 유치를 위한 출혈성 투자로서의 성격이 짙어 퇴원 간과열 경쟁을 유발, 또 다른 경영 압박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지적도 만만치 않다.

2일 광주지역 전문병원과 개인병원들에 따르면 지난 해부터 시작된 불황으로 의료 시장이 크게 위축됐음에도 불구하고 상당수 병원들이 환자를 선점하기 위해 수억원에서 10억원 이 넘는 고가 장비를 속속 사들이고 있다.

여대의 고가 의료장비 도입이 치열한 분야는 주로 기기의 의한 수술 및 처치가 많은 안과·피부과·치과 등이다.

광주시 서구 광천동 B안과는 최근 라식 수술시 각막 절삭에 사용되는 칼날 대신 레이저를 이용하는 다빈치

알레그레토라는 라식기기 및 레이저를 도입했다. 이 기기와 레이저의 가격은 총 13억원에 달한다.

B안과의 신 기기 도입 결정 이후, 경쟁 관계에 있는 서구 상무지구 L안과도 비슷한 종류의 6억원에 가까운 기기를 구입해 시술에 들어갔다.

이로 인해 다른 안과 병원들도 신기기 도입을 검토하고 있다. 광주지역 안과 전문병원들의 라식 기계는 대부분 6억원~7억원으로 타 지역에 비해 고가인 점을 감안하면 신기기의 추가 구입은 상당한 부담이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상무지구 M피부과도 혈관레이저나 IPL 등 피부 미용 시술과 관련된 업체의 레이저 기기를 다수 보유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최근 전국에서 최초로 얼굴 잡티 제거 전용레이저인

젤플렉스를 2억2천만원에 들여왔다.

광천동 K지과는 지아보컬치료시 고무제품을 입안에 넣어 본을 뜯는 번거로운 작업을 광학카메라와 컴퓨터를 이용해 간단히 처리하는 기기를 광주에서 최초로 2억원에 들여와 시술하고 있다. 전체 공정을 1~2주에서 4~5시간으로 단축시켜 환자들의 불편을 크게 줄일 수 있다는 점에서 고비용에도 불구하고 기기를 사들인 것이다.

이인석 기아자동차차과 원장은 “사실 수억원짜리 고가 장비를 들여온다고 해서 곧바로 경영개선이 이뤄지는 것은 아니다”면서 “하지만 기술력을 흥보해 환자들을 끌어 오기 위해서는 고가 장비 툐라드는 불가피하다”고 말했다.

/채희종기자 chae@kwangju.co.kr



우체국 직원들 식당서 도박

광주서부경찰은 1일 식당에서 도박판을 벌인 유모(43)씨 등 우체국 직원 5명을 도박개장 등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 관계자는 “이미 압수품과 관련자 조사를 통해 입찰 과정에서 석연치 않은 부분을 발견했다”며 “고위직 공무원을 포함한 입찰 관련자 계좌 압수수색 등을 통해 뇌물이 오갔는지 여부를 집중 조사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남구는

남구는